해인사 제 62회 보살계 수계법회 봉행

10월 21~22일 양일간 개최

1000여 명 운집, 전각 참배
철야정진후 보살계 수계진행
학사대 전나무 고사목 활용
최치원상 제작해 21일 제막

성낙두 경남지사장


합천 해인사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보살계 수계법회 및 학사대 최치원상 제막식을 봉행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해인사 대적광전 탑마당, 해인도, 보경당, 학사대에서 보살계 수계법회 및 학사대 최치원상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총무국장 진각 스님 등 스님들과 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첫째날인 21일에는 해인사 각 전각 불보살 참배가 진행됐다. 대중들은 보경당 마당에 운집해 대적광전, 대비로전, 장경판전(법보전), 독성각, 명부전, 응진전, 만불보전, 보경당 등을 참배했다. 이어 최치원상 제막과 함께 주지 현응 스님 인사와 저녁예불, 해인삼매법문(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해인 총림 율주 경성 스님, 율학승가대학원장 금강 스님), 철야기도가 진행됐다.

둘째날인 22일에는 괘불대 상공의식을 시작으로 보례삼보, 보소청진언, 유치, 헌좌진언, 천수다라니, 석가모니 정근, 축원, 수계의식 등이 진행됐다.

현응 스님은 보살계 수계법회서 "보살계는 '공덕의 계'라 해서 한 번 받을 때 마다 공덕이 쌓인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삶이 풍족하고 행복하게 된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어 "수계의식에 참석한 대중들이 모두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무상보리심을 내길 바란다"며 "시방세계에 항상 계시는 불보살들이 청정한 계를 베풀어 주시도록 깊은 마음으로 정진하자"고 서원했다.

한편, 이번 보살계 수계법회에서는 최치원상 제막도 함께 이뤄졌다. 최치원상은 천연기념물인 학사대 전나무가 2019년 태풍으로 고사하자 그 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리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학사대 전나무는 한림학사 최치원의 지팡이가 자랐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나무다. 해인사는 이 전나무 고사목을 소재로 최치원 조형물을 제작했다. 국내서는 문화재 지정 해제 후 해제문화재를 활용한 첫 사례다.



개암사 '영산회 괘불탱' 국보 승격 모색

10월 20일 개암사 누각서 세미나 개최

부안 개암사(開巖寺) 소장 보물인 '개암사 영산회 괘불탱 및 초본'을 국보로 승격 지정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10월 20일 부안 개암사 누각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종수 순천대 교수가 '부안 능가산 개암사의 역사', 신광희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연구교수가 '개암사 영산회괘불도 및 초본 연구',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부안 개암사 영산회괘불도 및 초본의 가치'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종수 순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김정희 원광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박도화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신광희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연구교수는 '개암사 영산회괘불도 및 초본 연구' 발표에서 "개암사 영산괘불도는 불화승 의겸 스님의 작품으로 '오종범음집'과 '조상경'의 범자 비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개암사 영산회 괘불탱 및 초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할 계획"이라며 "'개암사 영산회 괘불탱 및 초본'이 국보로 승격 지정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국가지정 문화재는 대부분 불교문화재다. 문화재 지정에서 종교적 가치도 포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뮤지컬 '싯다르타' 전북공연 지원

10월 25일 전관 대관 협약…12월 30일 대관관람



금산사와 뮤지컬 싯다르타 제작팀은 10월 25일 불교뮤지컬 '싯다르타' 시즌4 관람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가 불교 뮤지컬 '싯다르타'의 전북공연을 앞두고 적극 홍보에 나선다. 금산사와 뮤지컬 싯다르타 제작팀은 10월 25일 불교뮤지컬 '싯다르타' 시즌4 관람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산사는 12월 30일 오후 3시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첫 회 공연의 전관을 대관해 관람하게 된다.

업무협약식에는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서고사 주지 화평 스님,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이영배 전북불교회관 사무국장, 김면수 싯다르타 제작팀 MSMC 대표프로듀서, 김미영 제작이사가 참석했다.

뮤지컬 '싯다르타' 시즌4는 인류 최초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하는 뮤지컬로 2600년 전 카필라국에서 태어난 고타마 싯다르타 태자의 출가 전 고뇌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냈다.

2019년 초연보다 연출과 짜임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현재 전국 주요도시 순회 공연을 하며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원효종 금강계단 개설

10월 14일 울산 요산정사서 수계법회 봉행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청암)은 10월 14일 총본산 요산정사에 금강계단을 개설했다. 개설법회에는 교수아사리 청암 스님, 갈마아사리 자윤 스님, 5증계사 법진 스님, 태일 스님, 현응 스님, 해민 스님, 해각 스님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구족계는 비구 스님으로는 법송, 적연, 도천, 수남, 효진, 왕산 스님이, 비구니 스님으로는 적명, 창연 스님 등이 받았다.

수계식에서 참석 스님들은 '초발심변정각'에 대한 화두를 품고 불교 생활화와 포교에 앞장 서기로 결의했다.

이날 교수아사리로 나선 청암 스님은 "물고기가 물에서 노닐 듯 계 안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계는 배가 해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먼 바닷길을 항해하듯 피안에 이르기까지 나침반과도 같다"며 "기쁨을 갖고 지계할 때 다시 환지본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착한벗들, 내·외국인 화합한마당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착한벗들(대표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이 10월 23일 '2022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전주교육대 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서는 제기차기, 고리 던지기 등의 전통놀이와 참가자 재능을 뽐내는 장기자랑이 펼쳐졌으며 입상한 참가자들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전달됐다.

행사장 내 부스에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주경찰서 법률상담, 호원대학교 다문화지원센터 대학입시상담,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이주여성폭력상담, (사)착한벗들 자원봉사단 소개 등이 이뤄졌다.

화합한마당에는 주춘매 (사)착한벗들 센터장을 비롯해 참좋은우리절 석연 스님, 김동준 전북이주여성삼담소장 등 이주민 200여 명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 어린이 수계법회 개최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회(대표 동천)는 10월 22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화엄사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에서 '제9회 영·유아·어린이·청소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자 부처님'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에는 19명 어린이들이 참여해, 불자로 첫 출발을 알렸다.

행사에는 동천 스님,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효공 스님(녹야원 주지), 동현 스님(신광사 주지), 소운 스님(관음사 주지), 연성 스님을 비롯해 60여 대중이 참여했다.

동천 스님은 "아이들이 부처님과의 작은 인연을 맺게되어 감사하다. 부모님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 정기시연



(사)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회장 월인)는 10월 22일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제18차 시연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된 '광주영산재' 정기시연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월인 스님, 호산 스님을 비롯해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광주영산재는 시련, 신중작법, 대령관욕, 지정청, 관음시식, 봉송 등이 진행됐다.

시연에 앞서 월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승관 건립과 지방문화재 분야별 개인인증이 되어 후학양성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영산재는 지난 2014년 범음범패에 혜령 스님, 바라무에 호산 스님, 작접무에 월인 스님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초파일 관련 전국 학술대회 개최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10월 21일 전남대 용봉문화관 4층에서 2022 빛고을관등회 일환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관등행사의 전통과 빛고을관등회 100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김용덕 한양대 명예교수의 '한국 연등봉축행사의 역사와 의의' △노금숙 中호남사대 교수의 '중국 연등행사의 역사와 의의' △김용의 전남대 교수의 '일본 연등행사의 역사와 의의' △르루 티낌엔 전남대 박사과정의 '베트남 연등행사의 역사와 의의' '△최명림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사의 '개화기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초파일 봉축행사의 유형과 변천' △양행선 광주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의 '광주초파일 기록을 위한 활동과 빛고을관등회 100년 보고회' 등 발표와 주제토론이 진행됐다.

도성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초파일 행사는 단순히 종교기념일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역사를 같이 하는 명절과도 같은 축제"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남사 제11회 전통음식 문화 한마당



울산 해남사(주지 혜원)는 10월 20일 경내 음식 전시실에서 제11회 전통음식 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울산불교연합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진각종 정지심인당 선덕정사, 벽선암 혜진 스님, 석남사 천조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화봉선원 기탁 스님, 바라밀선원 주형 스님, 지장정사 현우 스님 등 지역 스님 및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김영길 중구청장, 이정훈 불교신도회부회장, 김인선 울산불교여성회장, 박순란 울산불교교육대학 동문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문화한마당은 삼귀의, 반야심경, 주지 스님 인사(혜원스님), 내빈소개, 울산종단연합회장스님 격려사(백양사 산옹스님), 축사(경제부시장, 중구청장), 쌀 나눔전달식, 공지사항, 사홍서원, 테이프 커팅식, 음식라운딩, 회향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해남사 해원 스님는 "불도에 정진하고 몸을 청정하기 위한 어(魚)와 육(肉)을 피하고 해초 곡류중심 재료의 정진음식(精進飮食)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수행정신과 불교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며 "자연을 풍성하게 담아낸 한상 차림으로 건강하고 클래식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는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풍성한 가을날 넉넉하고 다채로운 고유의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라며 "향토음식을 통하여 승원의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귀한시간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읍 보림사 대숲길 쉼 음악회 눈길



정읍 보림사(주지 종진)가 대숲길 '쉼' 음악회를 개최했다. 10월 22일 보림사 특설무대에서 열린 쉼 음악회에는 가수 안치환, 조치현, 박행준, 김승준 마술사와 내장사 서래합창단이 출연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선운사 불교회관 관장 법만 스님,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 미소사 회주 종범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종상 스님, 종광 스님, 미소사 주지 대우 스님 등 스님들과 윤준병 국회의원, 임성식 전북도의원 등 지역 기관장들과 불자,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등산 증심사 오백나한대재 봉행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는 10월 27일 오백전에서 '임인년 오백나한대재'를 회향했다. 오백나한이 모셔진 증심사 오백전은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1443년 당시 목사인 김방이 꿈에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지은 건물이다. 정유재란 및 한국전쟁에 당시 모든 전각이 소실되었으나 오백전만 불에 타지 않고 전해져, 광주 제일의 기도성지로 꼽힌다.

증심사에서 매년 이런 의미를 담아 오백나한대재를 봉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안동 봉정사, 엘리자베스 2세 49재 봉행



안동 봉정사는 10월 26일 엘리자베스 2세 49재를 봉행했다. 엘리자베스 2세 49재는 엘리자베스 2세가 1999년 4월 21일 봉정사를 방문한 인연 때문에 열렸다.

49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봉정사 회주 호성 스님, 봉정사 주지 두현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1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진우 스님은 "봉정사는 전세계인들의 존경을 받은 영국 여왕이 찾은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